

변호사시험과 취업의 대비

- 시험과 취업을 앞둔 로스쿨 후배들에게 드리는 미력한 조언-

TV조선 사내변호사

허 중 혁¹⁾

I. 들어가면서

1. 로스쿨 3학년, 그리고 2학년 재학생들에게

지금쯤 여름방학이라 3학년들은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특강이나 스터디 등으로 분주할 시간일 것이고, 2학년 재학생들은 법원이나 로펌 등으로의 실무수습 및 법조윤리 시험 대비로 바빠서 바빠서 생각합니다.

제가 돌이켜 보아도 로스쿨 3년은 쉴 새 없이 바쁜 일정의 연속이었고, 그 과정은 항상 경쟁을 수반하는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무수습을 가려 해도 가고 싶은 곳에 가기는 쉽지 않고,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를 시작해 봐도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가 참 막연한 상황인 것을 익히 겪어 보았기에, 후배 여러분들의 고충과 불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나, 변호사시험에 붙어도 취업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엄습하겠지요. 주변에는 벌써 로펌에 컨펌이 되었다는 동료들이 보이고, 누구는 검찰심화를 다녀오는 등 성적이 좋아서 검사가 될 것 같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이제 학점을 잘 받기 위해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학점은 포기하고 무조건 변호사시험에만 올인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우등졸업(하계 차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전공 수료, 일본 로펌 바스코 다 가마 실무수습 2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 김앤장 심화 실무수습,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회원,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회원, 일본어 능력시험(JLPT 1급) 취득, TV조선 인턴 후 입사, 엔터테인먼트법의 최신 쟁점 공저 출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석(총장상) 졸업,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중편 협의회 저작권협상 대표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별 것이 없습니다. 다들 불안하고 힘들다는 것, 그렇다 해서 절대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끝까지 보던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로펌을 가든 검사가 되든, 자신은 변호사시험에는 붙어야 하며 작은 법률사무소이라도 갈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가 없이는 앞으로의 시간이 너무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2.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졸업시험을 실시하여 그 탈락자들은 졸업이 보류됨으로써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로스쿨의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에 모든 로스쿨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실무가 분들은 볼 수 있는 지표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밖에 없으므로 그것이라도 참조해야 한다고 조언하시므로, 각 로스쿨의 합격률 자체가 언론이나 인터넷에 알려지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현상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졸업시험에 반드시 패스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의무연수기간을 보낼 수 있는 취업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하면서 취업에도 성공하는 것,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실무에 나와 돈을 받으며 일한 지 이제 7개월째, 인턴기간까지 합치면 직장에서 1년째 일하고 있는 셈인 제가 아직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언을 드리게 되어 몹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법시험을 2차까지 경험해 보고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거치면서, 제1회 변호사시험과 세 번의 모의고사를 모두 경험하고 인턴과 취업까지 한 입장에서 가감 없이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로스쿨에 관해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글을 써 봅니다.

3. 취업과 실무에서 교수님들의 도움

과거 사법시험에서처럼 학원의 순환 과정을 밟으면 그 대비에 크게 무리가 없었던 점과 달라진 현실, 즉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과 연수원 교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이전의 제 글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로스쿨의 학점은 가르치는 교수님의 교과서와 논문을 철저히 보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하게 주어졌으며 실제 변호사시험은 연수원 민사실무 교재와 검찰에서 배

부한 검찰실무 내용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대략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이미 주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수님들의 도움입니다. 로스쿨생들은 졸업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취업과 관련하여 정보를 주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로스쿨의 교수님들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무를 하다 보면 법문과 판례에 의해 판단이 명백히 되는 사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부딪히는 애매한 문제들 그리고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는 실무가보다 오히려 해당 분야에 수십 년씩 이론적으로 공부해 오신 교수님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 모교 로스쿨의 교수님들께 여러 번 조언을 부탁드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이규호 교수님께서는 저작권에 관한 자문이나 취업과 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기에 지면을 빌려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II. 변호사시험은 먼저 사례형부터, 철저히 효율성 위주로

1. 우선은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생활

이전에 고시계에 모의고사 후기를 게재하면서,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동안 추운 날씨와 긴 시험일정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말씀은 누누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체력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평소에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체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이론이 없으실 것입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일면 잘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 더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법시험을 비롯한 고시공부를 이전에 해 보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실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수험생활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애의 시작 등 변수가 많은 모험적인 일은 피해야 하며, 심지어 식사를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루루 물려다니는 일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수험생은 심적으로 더 예민해지기 마련이고 사람들과 공부 외적으로 떠드는 것은 정신을 더 산란하고 허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험기간에 돌입하기 시작하면 소수의 마음 맞는 사람들과 공부 중심의 이야기만을 나누면서 될

수 있는 한 감정의 골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을 치루는 기간에도 숙연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본 내용으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소한 정보 자체에 너무 민감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례형 문제부터 먼저 정리하자

변호사시험의 경우는 시험 당일 사흘간 선택형 문제를 본 후에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이점은 사법시험 체제와는 전혀 다른 국면의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기에 선택형의 대비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객관식(선택형)의 공부부터 시작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사법의 경우에 오전에 선택형 시험문제로만 2시간에 70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간의 압박도 만만하지 않지만, 출제영역이 광범위한 점 때문에 포인트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택형 시험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례화된 경우가 많아서 바로 정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도 헌민형의 기본 3법이 아닌 후사법의 객관식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수험서에서도 후사법 과목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막판에 판례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하는 그나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선택형 시험의 대비는 시험에 근접한 연말 정도에 그 해 최신 판례를 구하여 정리하고 그 외 내용은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하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은 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양을 늘리셔도 되겠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전 과목을 정리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배점이 더 높으면서도 중요 논점에 대해 출제가 되는 사례형 문제를 먼저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유형과 같은, 중요 논점을 응용한 사례를 먼저 대비하는 것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에도 유리하고 배점이 높은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수를 확보하는 방안이라 보입니다. 각 과목별로 정평 있는 사례집이나 로스쿨에서 수업시간 중에 공부했던 자료들을 잘 정리하시되, 특히 출제될 확률이 높은 최근의 이슈나 판례의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기록형 시험의 대비는 학교에서

1기 졸업생들의 경우에 학점을 조금이라도 쉽게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당수 학생들은 부담이 되는 민형사 재판실무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1, 2학년들 과목인 실체법이나 발표 과목들을 수강하는 편법을 써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편법을 쓴 졸업생들은 지금 실무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을뿐더러, 단기적으로 변호사 시험 대비에 커다란 난항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림동 학원들의 시스템이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를 할 정도로 구축되지 않았을 뿐더러, 3학년 2학기를 끝나고 겨우 한 달 정도의 본격적인 시험 대비기간 밖에 없기 때문에 신림동에 왕래하면서 별도의 공부를 할 시간 자체가 없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형 시험의 대비는 우선적으로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체감난이도의 평가가 극에 달한 과목이 바로 민사법인데, 청구취지의 작성 부분부터 민사재판실무 또는 민사변호사실무 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문제는 민사변호사실무 수업과 시험을 거치면서 익혔던 연수원 민사실무 1, 2 교재의 내용들 중 가장 중요하고 무난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로스쿨의 민형사 재판실무 수업이나 연수원 교재를 꾸준히 보신 수험생이라면 기록형 시험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III. 취업을 위한 대비도 게을리하지 말자

1. 취업은 학점과 다른 패턴임을 인식하자

보통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점이 더 높은 학생이 조금이라도 규모가 더 큰 로펌에 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학점이 좋은 학생들이 로클럭이나 검사가 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의 채용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인턴을 시작한 후 법무적인 일을 서면으로 처리할 적에 채용에 관한 컨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채용에 관한 컨펌을 받은 것은 저희 회사의 개국 시점 직전에 일본 주주들을 초청하는 등 일본 관련 업무를 하던 중에, 저희 실장님께서 도쿄에 전화를 해서 일정을 잡으라는 과제를 수행한 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나 본 다른 방송국 관계자들도 그러하고,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는 상장사 관계자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라면 법적인 지식은 당연히 어느 정도 갖추었을 것이지만, 회사는 그 외에 특성화된 능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법만 잘 하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법을 알면서 외국어를 잘 하거나 경력이 더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점은 다소 낮아도 외국어를 더 잘 하거나 과거 직장경력이 있는 로스쿨생이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회사는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오랜 동안 교육을 새로 시켜서 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2. 저학년부터 취업의 전략을 세우자

로스쿨 재학생들의 경우, 취업을 위해서 어학을 공부하거나 다른 자격증을 따거나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등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격증을 따거나 행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한참 앞서 나간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3학년생들은 남은 시간 동안 변호사시험 공부를 하기도 빠듯한 시간인데 다른 국가시험을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험의 대비든 어학공부든 차라리 1학년이나 2학년 기간 동안 틈틈이 해 두는 전략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글을 보시는 1학년이나 2학년 재학생 분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취업에 효과가 큰 공부를 선택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영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정작 영어로 취업이 되는 분들의 영어 구사력을 보게 되면 상상 이상으로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영어가 네이티브에 근접한 수준이 아니면, 영어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로스쿨 후배들에게 중국어나 일본어를 하라고 권유합니다. 우리 법조인들 중에 영어를 매우 잘 하는 분들은 많지만, 중국어나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학년 때는 취업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강구해야 할까요? 저 또한 정확히 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제 경험을 통하여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3. 희망분야를 명확히, 정보수집의 기회를 다양하게

로스쿨 교수님들은 전원 합격의 중요성을 워낙 강조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법학 공부 외의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와 의무연수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변호사시험의 합격 이상으로 정식취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법률신문 등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되었지만, 실제로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는 상당수의 경우가 정식채용이 아니라 수습에 불과한 것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급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의무연수기간을 채워야 하는 이유 때문에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법률사무소에 있는 동료들이 아직도 많은 현실입니다. 즉 취업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선행되지 않으면서 변호사시험 대비만 하다가 졸업할 경우, 특별히 학점이 최상위권이라든가 남들보다 특출한 스펙이 없는 경우라면 1기 졸업생들보다 취업 자리를 찾는 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위한 밑그림을 대략이라도 그리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부터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로펌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는 설사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취업을 도와주고자 하여도 학생이 하고 싶은 분야가 명확하지 않으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 후 4달 정도 흐른 지금 시점에도, 이미 취업한 법률사무소나 회사를 뛰쳐나온 동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희망분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취업정보를 수집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과거 생각해 오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및 일본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확고한 상태였기에, 문화법 특성화인 모교 로스쿨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현재 엔터테인먼트 관련 일을 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취업의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정보수집의 기회를 최대한 다양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의 실무수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으시리라 생각되으나, 3학년 때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변호사협회의 채용계시판이나 각 로스쿨의 채용계시판 등을 참조하시는 것은 물론, 과거 실무수습을 하면서 알게 된 실무가 분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전의 실무수습을 통하여 형성된 이미지가 취업에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검사와 로클럭의 임용과정

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따라서 실무수습 과정에서 알게 된 실무가 분들과의 인적 교류에도 상시 신경을 쓰시되, 실무에서 필요한 공부나 어떤 것인지도 미리 체크해 두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로스쿨에서 저작권법 한 번 수강하지 않은 졸업생을 채용할 리가 만무하며, 국세청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 로스쿨에서 세법 과목 한 번 안 들은 졸업생을 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에서도 신규 검사 임용 시에, 로스쿨 재학 중 검찰실무 과목을 수강한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실무가뿐만 아니라, 로스쿨 내에서도 여러분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취업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주실 수 있는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모교를 졸업한 선배들도 취업에 있어 정보를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졸업생들이 무슨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먼저 법조계에 나가서 그 바닥 일을 겪어 본 선배들의 조언이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밖에서는 매우 좋은 직장이라 여기는 곳이라도, 정작 그곳에서 일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취업을 해 본 실무가 분들이 아니라, 의외로 최근 취업을 겪어 본 직전 선배들이 좋은 직장이라 일컫는 곳이 정말로 대우가 좋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4. 로펌만이 능사가 아니다

로스쿨 기간 동안 그리고 취업을 하면서, 많은 로스쿨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로클릭이나 검사보다도 대형 로펌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과거 직장경력이 있으시거나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연봉을 많이 따지는 것 같고,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달리 판사나 검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환상도 크지 않은 듯합니다. 과거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를 목표로 하는 고시생을 거의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로스쿨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형로펌에 취업이 되면 축하할 일이겠지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혹독한 업무 부담과 경쟁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로펌 뿐만 아니라 중소형 로펌들도 많은 업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로펌에 가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한 체력과 집중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펌을 비롯한 법률사무소는 연봉 외에 사내 복지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업에 취업하는 변호사들이 받는 의료 및 교육, 보험의 혜택은 없음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국가기관에 취업한 경우 처

럼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곳이 법률사무소입니다. 물론 법조인의 대부분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게 되겠지만, 포화된 송무 시장과 급증하는 변호사 수를 고려하면 법률사무소가 아닌 다른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로스쿨의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취업에 있어 법률사무소만 고집하지 말고, 각종의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IV. 학회나 연수의 중요성

1. 기존 사법연수원 출신들과의 차별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와 형사에 관한 재판실무를 혹독할 정도로 익힌 법조인들보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소송업무를 바로 잘 하기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나름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법연수원 출신과의 '업무나 능력에 있어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시간도 빠듯하기 때문에 기존 변호사와의 차별화란 것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스쿨 재학생들 중에는 과거 직장 경력이 출중하거나 이미 법학 공부가 어느 정도 된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공부량을 확보한 이후에는 취업의 목적 달성은 물론 기존 사법연수원 출신과의 차별화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사법시험 준비를 통하여 부족하나마 로스쿨에서 학점을 잘 내던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 외에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법을 접할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평일과 시험 기간에는 밤늦게까지 법 공부에 매진하는 한편, 주말이나 방학에는 규칙적으로 일본 원어민들과 회화를 하고 작문하는 연습을 2년간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2학년 겨울방학 때에는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취득할 수 있었고 그러한 연습 덕분에 지금의 회사에서도 일본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수험법학만을 3년 내내 공부하였다면 아직까지도 일본인들과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일을 전혀 하지 못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각종 학회나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실무를 하면서 더욱 느끼는 것이지만, 업무에서 부딪히는 일들은 법문이나 판례에 비추어 명확히 결론이 나오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업무에서 주어지는 일들은 항상 애매한 것으로 판례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라 결국 이론적인 검색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은 상시 개정되는 것이므로 최신 정보의 습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최신 정보의 습득 면에서, 학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의 이슈들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수님들과 실무가 분들로 구성된 전문적 학회입니다. 저의 경우 로스쿨 시절 내내 이규호 교수님이나 정홍식 교수님께서 주최하신 학회를 통하여, 지적재산권법이나 국제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학회에서 알게 된 장달영 변호사님이나 석광현 교수님, 오상현 교수님과 같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법조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도 행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를 통하여 알게 된 김형두 판사님은 광노현 교육감 사건으로 유명해지시기도 했고, 역시 민사소송법학회에 참석했다가 김경득 변호사의 따님인 김미사 일본변호사를 알게 되어 일본 로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모교 로스쿨이 처음 시행했던 일본 법률사무소에의 연수를 통하여 중요한 경험을 쌓고 그것이 좋은 스펙이 되었던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도쿄 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를 다녀오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법원과 로펌들을 드나들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 법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 학원에 가는 것이 기다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연수기간 동안 은혜를 입었던 카토 변호사님이나 카타오카 변호사님은 아직도 만나 뵈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교 로스쿨의 후배들 중에는 중국 로펌에의 연수를 다녀 온 경우도 있어서, 중국 법조인과의 교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로스쿨 재학기간 동안에 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 시간에 정보의 습득과 인적교류를 위하여 각종 학회 및 연수에 참여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학년 기간 동안에 워낙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학회나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학년 여름에 단 4일의 기간 동안 모교 로스쿨이 진행한 중국 빼이징에 있는 정법대학에서의 연수를 했던 일은, 저에게 매우 유익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

니다. 결국 각자 선택의 몫이긴 하지만, 취업뿐만 아니라 향후 실무에 나가서서도 정보의 습득과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법조인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므로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 시험에 임박한 공부에 있어서

1. 시험은 철저히 중요 논점 위주로

변호사시험 문제의 방향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1회 시험문제는 로스쿨의 교육 과정을 열심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출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은 늘 시간은 부족한데 보아야 할 분량은 방대한 현실에서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약간의 마인드 정립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쯤 지난 변호사시험을 두고는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제2회 또는 제3회 변호사시험의 대비에 있어서는 철저히 중요 논점 위주의 공부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변호사시험은 한 번밖에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엽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저는 후배들에게도 늘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고 저 자신도 지난 시험에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대비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부분 등 매우 중요한 논점만 출제해도 수십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굳이 이론만 있고 판례는 없는 논점들이 사법시험도 아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로스쿨 수업시간에도 늘 다루었고 판례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매우 중요하고 보편적인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전략이, 모든 범위를 같은 정도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출제될 확률이 낮은 부분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먼저 헌법의 경우 모의고사에 늘 출제되었고 결국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주제가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그 중에서도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의고사에서 계속 출제되었고 결국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주관식 사례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주제입니다. 검열금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만 충실히 암기하면 20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액세스권과 같은 어려운 내용을 붙잡고 앉아 있을 필

요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시험에서 항상 출제될 우선순위는 수험생 누구나 꼽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을 공부한 전제라면, 언론출판의 자유 다음으로 중요한 직업의 자유(단계이론 포함), 평등권 등의 논점부터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도 남은 시간이 있다면 환경권 같은 주제를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환경권과 같은 주제들은 수십 년 동안의 사법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책의 순서대로 관할부터 공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 학원 강사는 관할 부분만 강의해도 테이프가 6개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실무에서 관할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란 형사소송법이란 관할은 가장 나중에 공부해야 할 내용이고 설령 출제되더라도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다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저는 제1심 절차부터 공부할 것이며 자주 출제되는 중중복소금지, 제소금지, 기판력 등의 3대 소송요건 문제부터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의 중요 논점들을 심도 있게 공부할 것이며, 다수당사자소송을 공부하더라도 보조참가와 선정당사자에 먼저 화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보조참가와 선정당사자도 아직 정면으로 출제가 안 된 변호사시험에, 독립당사자참가가 큰 배점으로 출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공부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 지나친 소심함으로부터 벗어나자

로스쿨 재학생은 물론이고 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매우 똑똑하고 성실하지만, 다른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소심한 약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소심한 점이 실수를 줄이고 적을 만들지 않는 장점도 있으나, 큰 시험을 치루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서 출제확률이 낮은 부분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이런 말은 수십 년 전부터 고시가에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어느 정도 동의도 하지만, 실제 공부에 임하면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수험생의 심리입니다. 저 또한 변호사시험이 10회 정도 진행된 사항이면 그렇게 소심하게 공부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변호사시험 2회나 3회를 대비함에 있어서는 다소 과감한 방식의 공부가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성적이 좋지 않거나 아직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은 수험생들로서는, 너무 양을 늘리게 되면 합격하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기출문제 수십 년 치를 옆에 참조로 두시고, 거기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주제들은 과감하게 넘어 가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주제들이 정 마음에 걸린다면,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모두 공부한 이후에 시간이 되면 가볍게 스크린하는 정도로도 합격의 수준에는 충분히 이르실 것이라 조심스레 말씀드려 봅니다.

VI. 마치면서

1. 중요한 것은 법학 실력

제가 로스쿨 재학 기간 만나 뵈었던 교수님들과 선배 변호사님들의 공통적인 조언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법학 실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학실력이나 경력 등 스펙은 취업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결국은 법학 실력이 전제된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끝났다 하여 법학 공부는 끝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하는 과제인 점은 모두가 알고 계실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학 공부는 마라톤과 같은 먼 길을 달리는 것과 같아서 쉽 없이 경주해야 하는 것이며, 자기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주변의 스승과 선배들의 도움도 필요한 과정임을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던 모교 로스쿨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마운 교수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일일이 다 거명하지 못함을 헤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결국은 자신이 해 온 대로 인정받는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제 나름의 정말 솔직한 진심을 담아 보려고 노력한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기생들은 정보의 부족 상황에서 힘들게 나아간 점이 적지 않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후배 재학생 여러분들은 1기들에 비해 많은 정보 아래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변의 일부 학생들이 어학이나 경력이 탁월하여 대형 로펌에 컨펌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재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학 실력과 함께 다른 재

능을 계속해서 연마하는 가운데 언젠가 빛을 보게 될 재학생들도 많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전에 공부와 취업으로 고민하던 중에 교수님 한분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힘든 시절 많은 위로가 되었던 그 말씀으로써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신이 해온 대로, 가진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인정받게 된다고 믿습니다.”